

B-4 조직 재생 유도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정동근,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조직 재생 유도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 GTR)의 목적은 치주조직이 상실된 치아의 치근면에 새로운 결체조직의 부착 및 치주조직의 재생이다. Melcher(1976)에 의해 조직재생 유도의 기본 개념이 발표된 이후, 여러 연구(Isidor 1985, Karring 1985, Magnusson 1985, Nyman 1982, 1987)에서 치근면과 치주관막 사이에 위치한 차폐막이 치은 상피와 결체조직 세포를 배제하고, 치주인대세포를 결손부위에 선택적으로 증식하도록 하여 조직 재생이 일어나도록 유도함이 밝혀졌다.

Nyman(1982)에 의해 처음 millipore filter가 차폐막으로 이용된 후,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e-PTFE)으로 대표되는 비흡수성 차폐막과 collagen, Polylactid, polyurethane등의 흡수성 차폐막이 재생술에 이용되고 있다. 흡수성 차폐막은 조직 재생술 4-6주 후에 관혈적 술식에 의해 제거되어야 하는 비흡수성 차폐막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임상적 결과에서는 두 차폐막 사이에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차폐 기능에 특정 성분(예 ; antibiotics, growth factor, chemotactic factor, adhesion factor)이 첨가된 차폐막이 치주 결손부 치유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 재생 유도술의 임상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한데 이는 patient factor, defect factor, technical factor 등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증례 발표의 목적은 조직 재생 유도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함이다.